

한적한 남해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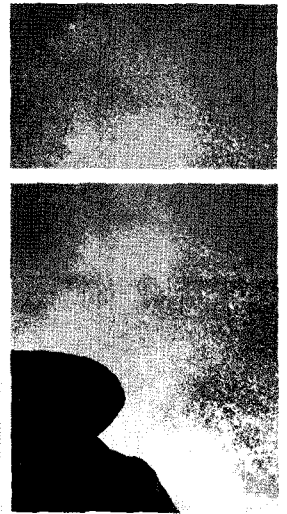
주문진 이사부크루즈 유람선

류 동 근
여행작가

2000년대가 시작되고 딱 10년이 끝나갈 즈음에 동해안 어촌 마을을 찾았다. 새천년이 시작된다고 떠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낀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1년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세월이기도 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행복의 때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새로 시작되는 10년도 후회스럽지 않기 위해서 늘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강원도 양양이나 주문진은 서울에서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 춘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완전 개통이 된다면 서울에서 이곳까지 2시간 정도면 올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교통이 좋아졌다.

동해안을 가기 위해서는 배달민족의 기상을 느끼게 하는 백두대간 등줄기를 넘어야 된다. 넘을 때 마다 수려한 우리강산에 감탄을 한다. 어찌면 저리도 당당하게 위용을 떨치고 있던 말인가! 사람도 허리가 강해야 뭐든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듯이 우리 땅도 마찬가지이다. 저렇듯 힘이 넘치는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다. 특히 신줄기가 흰히 드러다 보이는 눈 내린 겨울 산이야 말로 백두대간의 진면목을 느끼기에는 최고다. 이러한 큰 즐거움을 감상하는 사이 차는 어느새 7번 국도를 달리며 북으로 향하고 있다. 유난히 파도가 거센 동해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추운날씨지만 창문을 잠깐 열어보며 소리를 질러본다.

“와! 바다다.”

“아빠 어디, 어디!”

“오른쪽을 봐”

두 딸이 힘차게 달려오면서 하얀 입김을 토해내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신기해한다.

“아빠! 지금 바다 가면 안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항구에 잠시 후면 도착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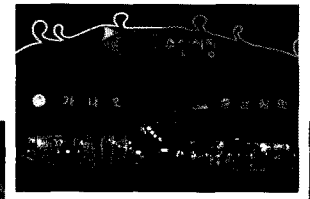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남애항이다. 그리 크지 않은 어항이지만 멋진 등대와 아담한 포구,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들이 해안가를 장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곳이다. 혹여 너무나 유명해져서 한적한 여유가 사라질까봐 걱정을 하는 여행자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곳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충만한 에너지를 받아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한여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남애 해수욕장에 몇 마리 갈매기와 하얀 파도만이 웅하니 남아있다. 차에서 내려 해변으로 내려간다. 바람이 그리 세게 불지도 않는데 파도는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로 높다. 일명 너울성 파도, 참으로 위험한 파도이기

에 관광객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 경고방송이 나오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방파제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지만 파도가 높을 때면 역동성 때문에 보기 좋다. 힘차게 달려와 바닷가 바위에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렇게 온몸을 내던져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부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치열하게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 늙기 전에 저 질풍노도의 파도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멋진 파도를 감상하며 해안길을 돌아서니 남애항이다. 1종 어항으로 양양 8경에도 들어가는 아름다운 항구이며, 배용준이 출연했던 드라마 호텔리어의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의 40, 50대에게 깊게 각인된 영화 고래사냥을 여기서 찍기도 했다. 항구 앞쪽으로 빨간 등대 하나와 하얀 등대가 보인다. 여행자에게는 멋진 사진소재가 되기도 하고 상념에 젖게 만들기도 하는 등대이지만 배를 부리는 어부에게는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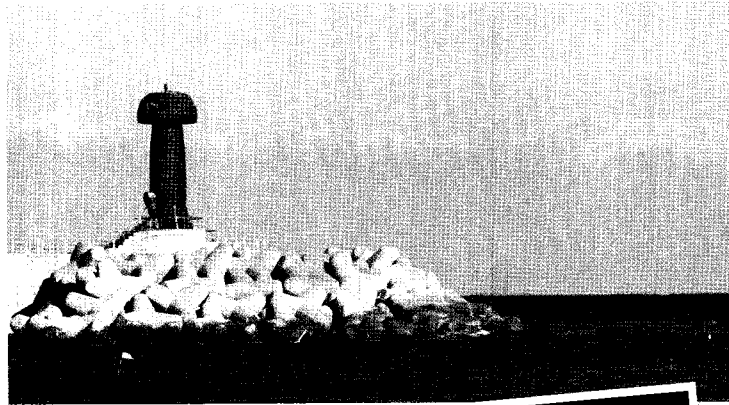
가 되어 주는 중요한 어항의 시설물이다. 한 쌍의 등대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인 듯 다정스럽게 보인다. 늘 서로 바라보고 있는 한 쌍의 등대가 있어서 남해항이 더욱 정겹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도 즐길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낚시배 체험, 경매 및 물고기 이름 맞추기 체험, 통발로 문어잡기 체험, 창경발이 전통어업 체험 등 어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같은 가족여행객들에게 딱 좋은 여행지이다.

아쉬운 남해항을 뒤로하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주문진항으로 남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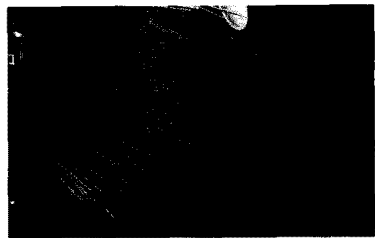
주문진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오징어, 빙고! 아마 일반인들에게 주문진을 물어보면 수산시장과 오징어를 떠올릴 듯 싶다. 나도 마찬가지로이니까, 강릉 위쪽, 양양 아래에 위치한 주문진은 항구도시이다. 예전에는 강릉에 속했었는데 여러 마을을 합쳐서 주문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1940년 11월 주문진읍으로 승격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해안 어업기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은 싱싱한 회를 먹기 위해서 또한 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사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항구이다.

이러한 주문진항에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졌다. 항구 오른쪽에 자리 잡은 이사부 크루즈다. 2010년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이 크루즈가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우선 위치가 좋다. 많은 관광객들이 주문진항에 들어오지만 정작 쇼핑만 하고 떠나는 실정이었었는데 여기에 크루즈가 생기면서 “핑 먹고 알 먹고”가 됐다. 연계 코스로 만들기가 좋아진 것이다. 우선 크기부터 여타 유람선하고 차이가 난다. 무게 700톤에 승선인원 850명, 우리나라에서 운항되고 있는 크루즈중에 최고급이다. 또한 기존에 있는 배를 개조해서 만든 크루즈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람크루즈의 성격에 맞춰서 건조했기 때문에 시설도 좋다. 그렇다고 유럽의 고품격 크루즈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실정에 맞게 시설을 갖춘 크루즈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싶다. 12월 31일 마지막 향차에 떠나는 크루즈는 밤 19시에 출항예정이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가 높아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혹 나가지 못해도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있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다. 상어의 입처럼 생긴 뱃머리로 들어간다. 소원풍선을 들고 있는 공연단원들과 직원들이 환하게 맞이해 준다. 기분 좋은 미소다. 크루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들뜬 관광객들이 하나둘 배에 승선한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천장의 풍선이 한껏 분





위기를 고조시킨다. 배 뒤쪽으로 준비된 뷔페 음식이 맛깔스럽다. 깔끔한 웨프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만찬테이블에 착석



을 하자 곧바로 저녁식사가 시작된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선상뷔페 음식이 골고루 준비되어있다. 모두들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동안 섹스폰 연주가 계속된다. 오늘은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다. 배안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는 듯하다. 식사가 끝나고 원래는 공연을 먼저 감상하고 디너크루즈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를 즐겨야 되는데 오늘은 파도가 높아 역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풍선을 들고 모두가 3층 갑판으로 나간다.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들의 소원성취 풍선 날리기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신나게 흐르는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춘다. 우리도 함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풍선을 힘차게 날린다.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오색 풍선이 희망차게 날아간다. 끈이어 이어지는 선상 불꽃놀이,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이다. 셋, 둘, 하나 “빠방” 겨울밤 하늘에 빨간 불빛 하나가 꺾적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더니 다시한번 “빠방 빠방” 연이은 폭죽소리가 선상위로 울려 퍼진다. 바로 머리위에서 바라보는 크루즈 갑판에서의 불꽃놀이는 또 다른 경험이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연신 셔터를 누르면서 주문진의 겨울바다를 만끽한다. 시간이 짧아 다소 아쉽긴 했지만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1층 대연회실로 내려와서 나머지 공연을 감상한다. 식사를 더하는 사람, 와인 한 잔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다. 주문진에 가거든 이제 쇼핑만 하지 말고 이사부 크루즈도 한번 타볼 일이다. 낮에도 3번 정도 운행하고 있다. 디너크루즈처럼 불꽃놀이는 감상할 수 없지만 동해안의 멋진 바다와 해안절경을 크루즈에서 구경할 수가 있어서 낮에 타도 좋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해의 멋진 바다를 보면서 삶의 위안을 찾고 또한 바다에서 생산된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더욱 행복한 여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도가 높아 체험을 다하지 못하고 서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한다.

동해마다여, 안녕! 🚢

